

# 새만금 간척지서 트리티케일 수확 연시회 열려

### 농진청, 불량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풀사료 수확량도 많아

간척지는 국가 차원의 식량과 풀사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작지이자 첨단농업시설을 갖춘 수출 전진기지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8일 새만금 간척지(김제시 광활면)에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풀사료 종자 생산단지 일대에서 트리티케일 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확 연시회는 사료 가치가 높은 트리티케일을 소개하고, 재배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김제시와 공

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시회에는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김제시, 국립축산식품부,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경종·축산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트리티케일 신품종 및 보급 현황 설명 △사료 맥류 종자생산 현황 및 확대 계획 소개 △트리티케일 수확 및 곤폏말이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료작물인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의 교잡종이다. 추위, 가뭄 등

불량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풀사료 수확량도 많아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풀사료 전용 품종인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와 달리 수확시기를 조정해 풀사료 또는 알곡 사료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는 트리티케일의 77%가 새만금 광활 간척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올해는 54.5헥타르(ha)에서 190톤가량의 종자를 수확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트리티케일 품종 '조성'은 이삭이 빨리 깨 다른

작물과 이어짓기에 적합하다. 추위에 다소 약한 '조성'의 단점을 보완한 신품종 '한영'도 올해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연시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가축이 좋아하고 영양 가치가 우수하며 추위에 강한 트리티케일 신품종이 하루빨리 보급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이병규 과장은 "우리나라 풀사료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종자 자급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번 연시회를 통해서 국내 트리티케일이 더 많이 알려지고 재배가 확대돼 국내 풀사료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지역사회 인권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인권캠페인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 전개공, "한마음으로 인권존중 실천"

### 전북혁신도시-공공기관, 인권존중 캠페인·인권도서 전시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지역사회 인권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인권캠페인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권협의회 5개 기관(전북개발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과 지역주민이 다양한 책을 통해 인권을 접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 도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전북개발공사·한국출판문화산업진

흥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으로 참여기관 사옥에서 순회 전시할 예정이다.

'전북혁신도시 인권경영협의회'는 지역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를 위해 2019년 11월 출범했다. 또한,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경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인권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인권경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면서 '향반기에도 인권문화행사를 마련해 인권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농협, 스마트 농기계 활용 드문모심기 일관농작업대행 시연

### 드문모심기, 6~10장의 모판만으로 이앙 가능

농협경제지주(농협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8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함께 김제에서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이원택 국회의원, 정성주 김제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드문모심기 일관농작업대행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서는 스마트 농기계와 농자재 등을 전시하여 참석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 내빈들이 스마트 이앙기를 탑승하는 등 벼 드문모심기 일관농작업대행'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벼 드문모심기'는 파종 시 육묘상자 당 파종량을 늘리고, 이앙 시 재식

본수(한 번에 떼어내는 모의 양) 및 재식밀도를 줄여 필요한 육묘상자 수를 절감하는 선진 재배기술이다.

드문모심기로 벼 재배 시 기존에 농지 1ha당 약 22~30장의 모판이 필요하던 것에 비해 6~10장의 모판만으로 이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노동력 27%, 영농비용 42%의 절감효과가 있어 농업인의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농협은 2008년부터 농작업대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벼 드문모심기 재배방법 도입 지원을 시작하여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 및 농가 생산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스마트 농기계 활용 드문모심기 일관농작업대행 시연

또한 농촌진흥청과 MOU를 체결, 선진농법 확산을 위해 재배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 시범포 견학 등 다양한 영농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벼 드

문모심기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농법인 만큼 앞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바이오진흥원, 천년전북 청년식품과 함께 사회공헌 업무협약 진행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사회적 책임 구현 및 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천년전북 청년식품과 함께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바이오진흥원의 바이오·식품산업육성 업(業) 특성 및 역할을 기반으로 도내 기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신뢰와 유대, 상생을 통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진행되었다.

그 동안 ESG 경영전략 TF 활동을 통해 3대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추진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사회적 책임 구현 및 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천년전북 청년식품과 함께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있는 바이오진흥원은 △탄소중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케어팜 및 쿠팡클래스 운영,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 △직장 내 워라벨 문화 조성 및 윤리·준법 경영 등을 실천하며 ESG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천년전북 청년식품은 지난 2022년 12월 출범, 도내 식품기업 경영 2세 및 청년 식품 창업가들이 사업초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2030세대의 청년 네트워크 단체로 구성된 '두손푸드 본부장'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장수도계비 고명지 팀장, 다온파파푸드 이은영 대표, 건강한밥상 구단회 이사, 한우물 최운영 대표, 포스피 한신희 이사 등 전체회원 33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천년전북 청년식품 구경한 회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바이오진흥원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상생 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진흥원이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 내 취약·소의 계층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지역공동체 협업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농어촌공, 밀원수식재·분양... '꿀벌 살리기' 동참

한국농어촌공사는 5월 20일 '세계 꿀벌의 날'을 앞두고 나주(배원)농협과 함께 8일 밀원수 무상 분양과 식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인 꿀벌 실종 사태가 빚어지면서 꿀벌의 건강한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 중인 'KRC 꿀벌 귀환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서 공사는 지난해 전남 나주시 일대에 심은 밀원수 묘목(은목서)을 지역 과수농가에 무료로 분양하였고, 올해는 금목서 100그루를 추가로 심어 2~3년 동안 육성한 후 다시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식목일을 맞아 생태계 보전을 핵심으로 밀원수와 밀원 식물인 화이트로버를 심었다. 6월에는 세계 꿀벌의 날을 제정한 주한 슬로베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다가오는 '세계 꿀벌의 날'을 맞아 'KRC 꿀벌 귀환 캠페인'을 진행했다.

니아대사관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와 함께 '꿀벌 귀환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꿀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인식을 함께한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